VOL. 41
발행일 2021. 8. 31.

산청박물관
Sancheong Museum

월간 소식지
NEWS LETTER

대표번호 070·8990·2133 주소 경남 산청군 생초면 산수로 1064 www.sancheong.go.kr/schmuseum

[특집] 산청의 문화재 소식

산청 덕산사, 옛 이름 되찾고 문화재명도 변경



산청의 전통사찰, 내원사의 사찰명이 원래 이름인 덕산사로 변경되었다. 내원사에서 덕산사로 사찰명이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의 명칭도 변경될 예정이다. 보물인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山淸 內院寺 三層石塔)'은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山淸 德山寺 三層石塔)'으로 변경된다. 덕산사에는 보물로 지정된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과 국보로 지정된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있다.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은 철분이 많은 화강암 성분으로 검붉은색을 띄고 있다. 불에 타서 훼손되었으나 지붕돌의 모습으로 통일 신라 후기의 석탑임을 알 수 있다.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명문이 밝혀진 우리나라 최초의 지권인 비로자나불좌상이다.

2020년 내원사 대웅전의 위치고증을 위한 시굴조사에서 덕산사의 사찰명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었다. 출토된 기와와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와의 조합을 통해 내원사가 덕산사의 사지임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내원사는 1959년 덕산사 사지에 사찰을 창건하면서 붙여진 사찰명이다. 덕산사는 신라 무열왕 4년(657) 원효대사가 처음 세웠고, 무염국사가 상주하면서 많은 수행자들이 있었으나 광해군 1년(1609)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되었다고 한다. 덕산사의 '덕산'은 산청군 시천면 주민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다. 시천면 초입의 남명 조식 유적 인근부터 지금도 덕산으로 불리고 있다. 이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명도 덕산이고 인근의 시장 이름도 덕산시장이다.

[사진출처: 문화재청]

산청박물관, 산청군 청소년축제 온라인 부스 참여

산청박물관은 오는 9월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4회 산청군 청소년축제 온라인 부스에 참여한다. 이번 청소년축제는 산청박물관을 비롯한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 13곳이 참여해 진로·직업체험과 이벤트 캠페인 등 18개의 온라인 부스가 마련된다. 온라인을 통해 각 학교 교실과 청소년 단체와 직접 소통하는 '교실로 찾아가는 온라인 축제'방식으로 확대 진행된다.

또 산청박물관과 산청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3월부터 준비한 '산청 우리 동네 이야기 발굴단'의 결과물과 활동과정에 대한 전시회도 함께 개최한다. 전시는 9월1일부터 군청1층 로비와 청소년 수련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이번 청소년축제와 우동이 전시는 산청읍농촌중심지주민위원회의 지원으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축제 콘텐츠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